

근시교정수술 수분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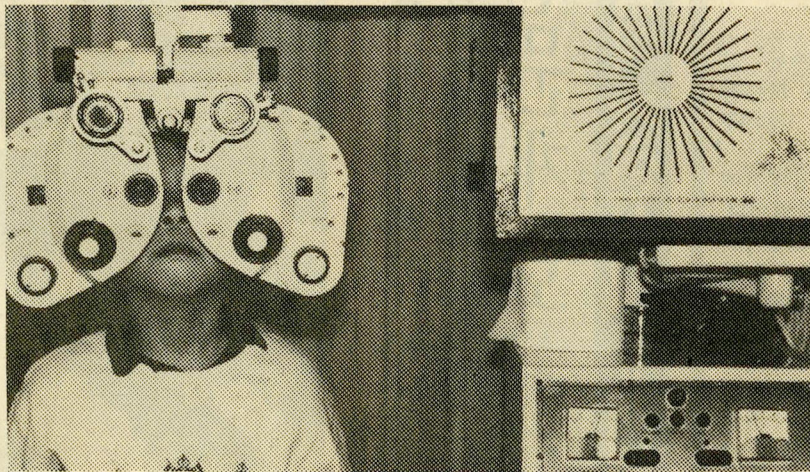
성모병원 '엑시머레이저' 도입 ... 입원 않고 직접 수술 장비에 컴퓨터부착...환자상태자료 입력하면 교정 "끝"

근시나 근시성 난시를 교정하기 위한 수술이 입원절차없이 외래에서도 수분내에 가능해지고 있다.

가톨릭의대 강남성모병원(원장·김승조)은 최근 '엑시머 레이저'를 도입, 각막 중앙부를 절제 연마함으로써 근시교정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수술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동안에는 각막중심부를 제외한 주변부위를 다이아몬드 칼로 8개의 방사모양 절개를 해 근시교정 효과를 얻는 '방사상 각막절개술'을 사용해 왔으나 '엑시머 레이저' 도입으로 진일보한 2세대 방법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엑시머레이저'에 의한 근시



교정수술은 '방사상 각막절개술'과는 정반대로 각막 중심부 (직경 4.5~5.0mm)를 깊이 10~60u로 절제 연마해 근시교

근시나 근시성 난시를 교정하기 위한 수술이 입원절차 없이 외래에서도 수분내 가능해지고 있다.

정 효과를 얻는 것인데 레이저 장비안에 컴퓨터가 내장돼 있어 환자의 굴절 도수 및 곡률 반경만 정확히 입력해 주면 쉽게 교정할 수가 있게 돼 있다. 보통 20~40세 (평균 25세) 정도 연령대의 근시나 근시성 난시 이외에 질병이 없는 눈이어야 수술이 가능하며 정도 및 중등도의 근시(6디옵터 이하)가 가장 수술대상으로 적합하다.

디옵터는 굴절도 단위로 3디옵터 이하면 정도, 3~6디옵터 이하는 중등도, 그이상일 경우

고도근시성으로 분류된다. '엑시머 레이저'에 의한 근시교정수술은 외래에서 국소마취하에 우선 각막 중앙부의 각막상피를 제거한 후 엑시머 레이저광으로 수술을 시행하는 것이며 수분내로 끝낼 수 있는 간편한 수술법이다.

그러나 수술후 약간의 통증과 눈부심이 있고, 수술중시는 일시적인 원시상태가 있으며 약 1~3개월에 걸쳐 서서히 회복된다.

특히 눈부심, 동통, 각막상피 하 미세 혼탁, 근시의 과교정(원시), 난시 및 부족교정의 합병증이 생길 수도 있으나 대부분 일시적이고 영구한 후유증은 남기지 않는다는 점에서 방사상 각막 절개술보다 교정효과가 정확하다는 것이 강남 성모병원 안과 김재호 과장의 설명이다.

또한 앞으로는 10디옵터까지의 고도근시나 한쪽눈의 근시가 특히 심한 경우에도 교정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돼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 등의 착용으로 불편을 겪어온 근시환자들에게 희소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직은 의료보험 적용이 안돼 방사상 각막절개술의 경우 한눈에 약 60~70만원, 엑시머레이저에 의한 각막 연마술은 약 90~1백만원 정도의 수술, 진료비용이 필요하며 ▲한쪽눈 수술후 약 2~4주후의 관찰 결과에 따라 반대쪽 눈을 수술하게 되는 점 ▲수술후 눈에 점안한 안약(텍사 코티손제)의 장기 사용에 따른 안압 상승으로 녹내장이 나타날 수도 있는 점 ▲약제를 사용하는 3개월간은 정기적 안압측정과 주기적 눈검사를 받아야 하는 점등의 불편함은 감수해야 한다.